

‘AI·생산적금융’ 중심 사업모델 혁신… “자본시장 역할 확대”

증권업계 병오년 경영전략

국내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공통적으로 꺼내든 키워드는 ‘인공지능(AI)’과 ‘생산적 금융’이다. 은행 중심이던 자금 흐름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국면에서, 인공지능을 업무·의사결정의 핵심 엔진으로 삼고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을 앞세워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성장 전략의 전제로는 예외 없이 ‘고객 신뢰’와 ‘내부통제’가 함께 깔렸다.

◆AI는 선택이 아니라 전제…“업을 바꾸는 엔진”

김미섭·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대표는 신년사에서 “2026년을 미래에셋3.0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전통 금융을 넘어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 질서로의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두 대표는 “IB·PI(자기자본투자) 역량을 기반으로 생산적 금융과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AI, 반도체, 로보틱스 등 핵심 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방향을 더 직설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올해 새롭게 출발하는 한투증권이 나아갈 길은 ‘경계를 넘어서자(Beyond Boundaries)’”라며 확장 전략을 선언했다. 김 사장은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해 새로운 금융의 주체가 됐다. 이를 토대로 증권사의 강점인 기업 금융과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대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



강진두
KB증권 대표



이홍구
KB증권 대표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

김미섭·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대표
“디지털 자산 등 금융질서 전환 선도”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IMA 토대로 경계를 넘어서는 확장”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
“모든 프로세스, AI 관점에서 재설계”

혁신 투자를 시행할 것”이라며 “IMA는 우리의 신규 수익원인 동시에 대한민국 성장 동력으로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AI에 대해서는 “AI는 단순한 지원도구가 아니다. 업의 경계를 부수고, 새로운 수익의 영토로 나가게 하는 강력한 무기”라며 “남들보다 한발 앞선 기술 도입과 신사업 발굴로 내일의 수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 역시 AI를 ‘도입’이 아닌 ‘재설계’의 문제로 규정했다. 윤 사장은 “올해는 단순한 도입을 넘어 우리의 모든 프로세스를 AI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과감한 실행에 집중하겠다”며 “이제 AI는 일하는

방식부터 의사결정 프로세스까지 사업 모델 전체를 혁신하는 엔진”이라고 했다.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는 기술 경쟁력을 ‘속도’로 정의했다. 엄 대표는 “속도는 곧 경쟁력이자 차별화의 핵심”이라며 “AI, 데이터, 시스템 안정성, 정보보안, 서비스 아키텍처 전반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도 “발행어음을 기반으로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AI로 업무 프로세스 전반의 의사결정과 실행을 고도화해 자본시장의 판을 바꾸는 증권사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IMA·발행어음으로 모험자본 확대… 전제는 신뢰와 통제

신년사에서 가장 강하게 걸친 또 하나의 축은 ‘생산적 금융’이다. KB증권은 올해를 ‘전환과 도약의 해’로 규정했다. 강진두·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올해 자본시장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축으로 새로운 경쟁 질서가 형성될 것”이라며 “변화의 시기를 도약의 호기로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생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
“AI·보안 등 기술경쟁력 확보 주력”

강진두·이홍구 KB증권 대표
“생산적금융 확대·리스크 관리 강화”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
“속도보다 정직·견고, 축적의 시간”

산적 금융 확대와 함께 자본 효율성,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동시에 언급된 배경이다.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IMA를 ‘인프라’로 보고 “IMA는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자본시장의 자금을 창의적인 투자로 연결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인가 완료까지 겹쳐 한자세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물론 이후에는 전사 차원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모험자본 투자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성장보다 ‘되돌림’을 먼저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

해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게 스스로를 재검열하며 비상경영체제를 감내했다”며 “빨리 달리는 것보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걸쳐 내실을 더 깊고 단단하게 다지는 것이 올해 우리가 달성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올해 우리는 발행어음이라는 새로운 기회의 도약대에서 있다”며 “기업에게는 성장을 위한 모험자본을 과감히 공급하고, 투자자에게는 성장의 과실을 투명하게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는 43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권사 수장들이 신년사에서 한목소리로 ‘자본시장 역할 확대’를 꺼내든 배경에는, 시장 환경 변화와 함께 자본시장이 성장자금의 중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AI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IMA·발행어음으로 모험자본을 키우되, 내부통제와 고객 신뢰를 전제로 삼겠다는 점에서 올해 증권업계의 전략 방향은 분명해졌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지난해 은 ETF 수익률 137%… 금 2배 수준

주요 원자재 중 가격 상승세 두드러져
안전자산 수요·경기회복 기대 등 영향

은 시장에 뭉치돈이 몰리고 있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 안전자산 수요와 경기회복 기대를 동시에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핵심 원자재로 부상한 것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ODEX은선물(H) 지난 1년간 수익률은 136.58%로 금 선호를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KODEX골드선물(H)의 수익률은 58.19%, TIGER골드선물(H)은 56.27%로 약 2배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순자산 총액 역시 KODEX은선물(H)은 지난해 1월 2일 약 802억원에서 지난달 30일 기준 5920억원으로 638% 급증했다. 동일 기간 KODEX골드선물(H)과 TIGER골드선물(H)이 각각 135%, 137%씩 늘어난 것과 비교해 상승세가 가파르다.

실물 투자 수요도 급증했다. KB국민·신한·우리·NH농협 등 4대 은행에서 지난해 판매된 실버바 금액은 306억 8000만 원으로, 2024년(7억 9900만 원) 대비 약 38배 늘었다.

은 가격이 치솟고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은값은 연초 대비 183%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금값 상승률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실버바를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71%)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주요 증시 상승률(S&P500 17%, 닷케이 225.26%, 코스피 75%)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준이다.

금과 은 모두 1979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은 현물 가격은 지난해 12월 29일 장중 한때 1트로 이온스당 사상 처음으로 80달러(약 11만 6000원)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은 시가 총액은 4조 400억 달러(약 5800조 원)에 달해 애플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금과 엔비디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치가 높은 자산으로 올라선 것이다.

홍성기 LS증권 연구원은 “달러화 약세, 주식시장 상승, 금의 상승 폭 둔화

등의 조건 하에서 투자의 초점이 금에서 은으로 전이되며 랠리를 시험하고 있다”며 “중앙은행 매입이 부재한 은의 열위와 원자재 사이클상 산업 급속 성장을 꺾는 은의 우위가 상쇄되며 금의 상승 폭 수준의 상승세가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3~4년 간 은 가격은 금과 대비해 언더퍼폼(시장 수익률 하회)했지만 지난 5월 이후 우호적인 조건이 갖춰지면서 은 가격이 오히려 아웃퍼폼(시장 수익률 상회) 중이라는 부연이다.

원자재 시장의 강세 배경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통화량이 늘어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해 금과 은 같은 실물자산 선호가 높아진다.

특히 은은 주요 원자재 중에서도 상승세가 두드러진 자산으로 꼽힌다. 산업 수요 급증과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동시에 나타난 영향이다. 은은 전기·열 전도성이 가장 뛰어나 전력·전자산업 전반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전자기관, 센서, 태양광 셀 등 고정밀 부품에 필수 소재다.

공급 병목 현상도 은값 상승을 부추긴다. 은 전문 시장조사업체 실버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세계 은 공급량은 약 10억 1510만 온스로 수요량인 약 11억 6410만 온스보다 1억 4900만 온스 부족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고액 자산가들 “투자 키워드 ‘K·O·R·E·A’”

(한국 주식 선호 등)

삼성증권 주식시황·투자계획 설문
금융시장 전망 ‘전도유망’ 최다 응답

금융자산 30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들은 올해 코스피가 4500포인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4일 삼성증권이 자사 30억원 이상 자산가 전담 맞춤형 서비스인 SNI(Success & Investment) 고객 4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주식 시장 전망 및 투자 계획’ 설문조사 결과, 이들은 올해 투자의 핵심 키워드로 ‘K·O·R·E·A.’를 제시했다. 한국 주식(K-stock) 선호, 한국 및 코스닥 시장의 성과 상회(Outperform), 주식 자산으로의 리밸런싱(Rebalancing), 상장지수펀드(ETF) 활용, AI 주도 시장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또 새해 금융시장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자성어로는 ‘전도유망(앞날이 희망차고 장래가 밝음)’을 고른 응답자가 25.2%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오리무중(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갈팡질팡함)’도 23.2%를 기록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초고액 자산가들의 절반 가까이(45.9%)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코스피가 “45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이들 중 32.1%는 ‘오전피’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뜨거워서 응답자의 59.6%가 코스닥 지수 1000선 돌파를 예상했고, 이 중 29.3%는 1100선마저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관점에서 ‘국장’이 ‘미장’보다 유망하다고 전망한 것도 눈에 띈다.

삼성증권은 주식형 자산 확대 시 유망 국가를 묻는 말에 ‘한국’을 꼽은 응답자가 54.3%로, 미국(32.9%)을 크게 앞섰다고 밝혔다.

초고액 자산가들은 올해 적정 포트폴리오 비중을 묻는 말에는 ‘주식에 80% 이상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57.9%에 달했고, 실제로 주식형 자산 확대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67.1%가 “그렇다”고 답했다.

투자 유망 업종은 AI·반도체(31.8%)가 1위였고, 로봇(18.0%), 제약·바이오·헬스케어(14.8%), 금융 등 고배당주(12.3%), 조선·방산·원자력(10.4%) 등이 뒤를 이었다.

투자방식에서는 개별 종목 발굴의 어려움 때문에 ETF 및 상장지수채권(ETN)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49.1%로 가장 많았다. ‘직접 주식매수’라고 밝힌 응답은 37.9%였다.

만약 단 한 종목만 살 수 있다면 무엇을 고르겠느냐는 질문에는 삼성전자가 18.2%를 차지했다. 그 뒤를 테슬라(14.1%), SK하이닉스(8.6%) 등이 따랐다.

/신하은 기자